

자큐보로 날개 단 온코닉, ‘비만 신약’으로 글로벌 공략

자큐보, 상반기 처방 매출 444억
네수파립, 4개 적응증 임상2상 진행
오는 11월 비만 신약 연구성과 공개

코스닥 상장 2년 차를 맞은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의 시장 안착과 함께 후속 파이프라인 네수파립의 임상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규 비만 후보물질까지 확보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개발 중인 신규 신약 후보물질의 첫 공식 연구성과를 오는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비만 전문 학술회의 ‘오비시티 워크 2026’에서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회는 연구의 신규성과 지식 기여도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정밀 평가를 거



온코닉테라퓨틱스 연구소 전경

/온코닉테라퓨틱스

쳐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학회 정책에 따라 신규 후보물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향후 학회 일정에 맞춰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최근 팽창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경쟁에 합류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특

히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신약개발 과정을 공유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약 상업화와 공격적인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상장 직전인 2024년 4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발매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매출 473억원, 영업이익 7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444억원은 자큐보 처방으로 거둬들였다. 인도네시아 기술이전 등 라이선스 수익도 29억원 발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2% 급증했다.

재무 및 지배구조 건전성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582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 0.8%, 차입금의존도 0%, 유동비율 1139.1% 등으로 외부 조달 없는 R&D 선순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제일약품(지분율 44.05%)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49.38%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2024년 12월 상장 후에는 항암제 후보물질 ‘네수파립’ 임상이 적극 추진됐다.

네수파립은 현재 체장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위암 등 4개 적응증에서 임상 2상에 진입했다. 임상 1상을 통해 확인된 내

약성,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방어에도 성공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신규 결정형 및 제조방법 특허 등록 결정을 받으면서다. 이 물질특허는 오는 2042년까지 미국에서 보호받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올해 안으로 미국 FDA에 네수파립 임상2상시험계획(IN D)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상 2상 기반의 조건부 허가 신청,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이전 등에 중점을 둔 전략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자큐보와네수파립에 이어 세계적으로 연구개발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서 블록버스터 약물을 연구개발해 차세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애경산업, 세계 무대에서 K-뷰티 기술력 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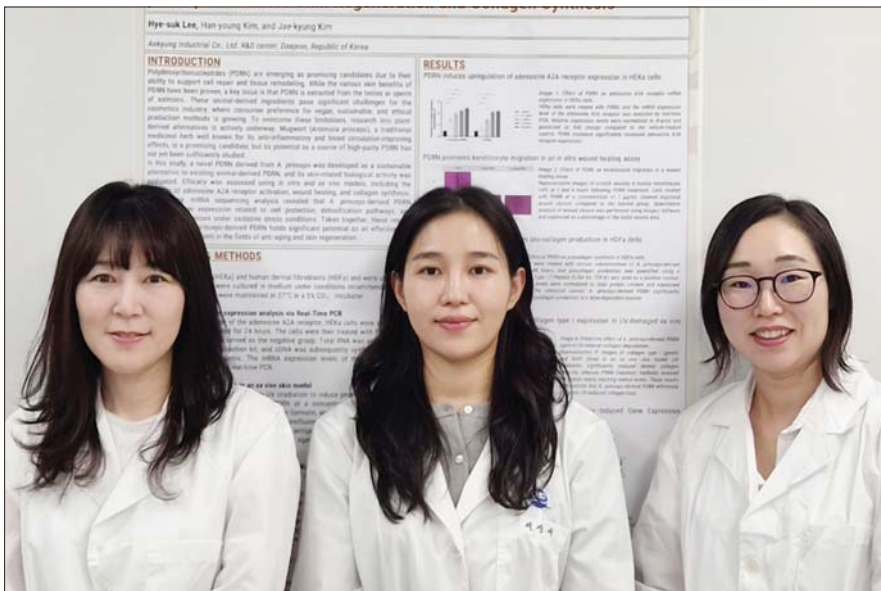
독자 개발 소재·처방 기술 3건 공개
5종의 식물성 PDRN 특허 확보

애경산업이 세계 최고 권위의 화장품 학회에서 독자 개발한 화장품 소재와 처방 기술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글로벌 뷰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였다.

애경산업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2026 세계화장품학회’에 참가해 화장품 소재 및 처방 기술 관련 연구성과 3건을 포스터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들은 특허 출원·등록 및 실제 제품화 단계를 거쳐 애경산업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핵심 기술로 탑재된다.

이번 학회에서 애경산업이 공개한 핵심 연구는 한국 자생식물 ‘쑥’ 유래 독자 식물성 PDRN 소재 발굴, ‘감국’ 유래 신규 유산균 소재 발굴, 무기 자외선 차단제 처방 최적화 기술 등 총 3건이다.

우선 독자 식물성 PDRN 소재 연구는 기존 연어 등에서 유래한 동물성 PDRN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PDRN을 발굴해 피부 회복 및 탄력 개선 효능을 입증한 성과다. 애경산업은 쑥 유래 PDRN의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또 방울양배추, 자작나무 등 총 5종의 식물성 PDRN 특허를 확보했다. 특히 대



애경산업 화장품연구부 연구원 3명(왼쪽부터)이혜숙 연구원과 서상아 연구원, 스킨케어연구팀 박윤희 연구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표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등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화와 식물인 감국에서 분리한 신규 유산균 발효물에 대해서는 미백, 보습, 피부 장벽 강화,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 관리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애경산업은 총 4종의 신규 유산균 특허를 바탕으로 향후 엑소좀 및 3D 인공피부 연구 등 차세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처방 기술도 구축한다. 이번 기술은 무기 자외선 차단제에 쓰이는 징크옥사이드 성분의 입자 형태와 코팅 방식을 분석해 실제 제품화에 최적화한 것이다. 징크옥사이드 함량을 27% 줄이면서도 자외선 차단 성능을 유지하고 피부 백탁 현상을 75%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기술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까다롭게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위한 기능성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헤라, 속광 살린 ‘맑은 피부’ 승부수

필릭스와 ‘스틸 그로잉’ 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가 프리미엄 베이스 메이크업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 시간이 지나도 착적해지지 않고 속부터 깨끗함이 차오른 맑은 피부가 핵심이다.

헤라는 브랜드 앰버서더 필릭스와 함께 ‘스틸 그로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너지지 않는 투명함과 결점 없는 매끈함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캠페인 중심 제품인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브랜드 인기 제품이다. 3만 명 이상의 글로벌 피부색 연구를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강화된 안티다크닝 기술이 집약됐다. 세럼 성분과 파운데이션 입자를 배합한 제형이 피부에 얇고 균일하게 밀착되는 것도 특징이다.



헤라 브랜드 앰버서더 필릭스가 ‘리플렉션’ 제품군을 소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이와 함께 선보이는 신제품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우더’는 모공과 피부 결을 관리하는 제품이다. 또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피부 속광에 자연스럽고 화사한 상아빛을 더한 헤라만의 ‘리플렉션 스킨 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멕시코 K-엑스포’ 출격

이선주 대표, 현장 찾아 홍보

LG생활건강이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대표 브랜드들을 선보이며 글로벌 뷰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이선주 LG생활건강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바이어 미팅과 고객 응대를 지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4~27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엑스포’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 최초의 한류 종합

박람회로 꾸며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 급증하는 K뷰티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LG생활건강은 앞서 북미 시장에서 흥행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닥터그루트’와 ‘더페이스샵’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에서부터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멕시코에 상륙했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팝업 트럭’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긴 대기 줄이 형성된 가운데, 이선주 LG생활건강

대표는 제품을 설명하며 현장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했다.

닥터그루트는 고급 두피관리 브랜드다. 북미 인기 제품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12종과 맞춤형 두피 진단 서비스를 확산하며 K샴푸 입지를 넓혔다. 더 페이스샵은 클린뷰티 브랜드다. 클렌징 제품군 ‘미감수’ 등을 통해 한국 전통에서 유래한 쌀뜨물 세안을 활용하는 등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행사 둘째 날인 25일에는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도 LG생활건강 부스를 다녀갔다.

/이청하 기자

韓바이오협회, K-바이오 성장 비결 공개

포르투갈 ‘바이오밋’서 기조 발표

한국바이오협회가 포르투갈 바이오 행사를 통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모델과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입증하며 유럽 바이오 업계와의 접점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포르투갈 리스본 타구스프크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포르투갈 최대 바이오 연례 행사 ‘바이오밋 2026’에 초청받아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포르투갈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유럽 전역의 바이오헬스 커뮤니티와 글로벌 석학, 투자자, 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황주리 대외협력본부장은 “한국 바이오 생태계의 기적과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주제로 한국 바이오 산업의 혁신 경쟁력과 기술 강점을 소개했다.

황주리 본부장은 1982년 유전자공학을

성법 제정 및 협회 설립부터 한국 바이오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며 의사과학자(MD)의 창업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 중심의 스피노프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포르투갈 생태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짚어내며 양국 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한국은 전통적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및 바이오시밀러에서 첨단 부문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계열 내 최초 약물을 비롯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 접합체(ADC), 약물전달시스템(DDS)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쏟아내는 바이오 강국으로 진화했음을 피력했다.

시장 규모 면에서도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세포 배양 양산 능력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청하 기자